



칼빈의 실천적 삼단 논법: 구원의 확신문제

유정우
평택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실천적 삼단논법"의 개념적 이해
 - III. 선택의 표징들: 칭의와 성화
 -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 V. 칼빈의 성서 주석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 VI. 결론
-

I. 서론

구원의 확신 문제는 칼빈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개혁 신학이 두 가지 교리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정론과 선행 추구 교리이다. 이 두 교리는 필수적으로 서로 속한다1) .

우리의 믿음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면, 우리는 선택을 확신하기 위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선택에 대한 표징을 반드시 묻게 된다2) . 인간은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자신의 내적 태도나 행위로부터 선택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3) .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선택 교리와 관계되는 칭의의 선물 성격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표징을 인정해야 하는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의 내적 태도와 그의 행위를 보고 그가 선택받은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견해가 "실천적 삼단논법4) " 이며 이것은 칼빈에게서 그 단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5) .

종교개혁 초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 교리와 인간의 선행의 문제는 논쟁의 문제가 되었다6) .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무조건적 선물이다. 종교개혁 시대 초기는 이 점에 일치하는 세대였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칭의 신학을 물려 받았다. 그러나, 은혜는 변형시키는 차원, 곧 그것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역사(役事)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갱신과 중생의 과정의 본질적 부분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신자에게 동기와 힘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칼빈에게 성화였다. 선행은 외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은 신자 안에 은혜의



현존과 행위의 가시적 표징이었다7) .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개혁 신학에서 칭의의 선물 성격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신자의 삶, 곧 신자의 행위와 관계되는 "성화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어떤 관계가 되는가?"는 언제나 논쟁점이 되어 왔다. 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성화의 삶이 예정론에 근거한 개혁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논쟁의 문제이다. 개혁 신학에서 미해결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빈은 "실천적 삼단 논법"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가? 칼빈의 신학에서 "실천적 삼단논법"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II. "실천적 삼단논법"의 개념적 이해

자신의 선배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칼빈은 은혜의 절대적 선물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은혜는 선물이다. 보상이 아니다. 어떤 의무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 선물은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주어진다. 은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반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칼빈에 의하면 예정론이 은혜의 선물 성격을 강조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히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8) ."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이 사실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선택된 자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선택에 포함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난다.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 주어진다면, 선택된 자에 의하여 은혜의 현존이 분별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칼빈은 이러한 문제를 교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증거는 그 반대를 암시하고 있다9) . 칼빈은 불신과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구적 특징으로 암시한다10) . 칼빈은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님을 강조한다. 종교개혁신학에서 행위는 구원의 근거에 조금도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칭의의 동기에서 뿐이지, 칼빈에게 행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도 꿈 꿀 수 없다. 행위 없는 칭의를 칼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행을 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1) . 칼빈은 행위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이해되는 것을 허락한다12) . 선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다스린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13) . 물론 신자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14) .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증거 된다15) . '선행의 은혜는...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 한다16) .'

선택의 증거로서 행위를 간주하는 이러한 경향은 목회적 중요한 상음(上音:overtones)을 가지는 행위 윤리를 밝히는 첫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신자가 자기가 선택된 자 가운데 있는지, 또 자신의 괴로운 양심을 확신할 수 있는 세상적 행동주의이다17) .

선택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불안은 결과적으로 칼빈주의 영성의 왜곡된 특징이 된다18) . 이 중 예정론에 근거를 갖는 신학에서 행위나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9) . 그러므로 개혁 신학에서 예정론은 최고의 중요한 시험 윤리로 나타난다. 실천적 삶에서 이 신학은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확신시켜야 하는 행위 추구를 보여 준다20) .



이것은 개혁신학의 풍자화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후기 개혁 신학은 이 선택의 확신에 대한 문제로 행위와 태도, 말씀, 성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한계와 함께 "실천적 삼단논법"은 인정될 수 있다. 행위에서 선택된 상태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21) .

어쨌든 우리는 "실천적 삼단논법"을 칼빈에게 책임 지운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중 예정교리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했기 때문이다. "실천적 삼단논법"이 후기 개혁 신학에서처럼 칼빈에게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이 교리는 그 짝을 칼빈에게서 찾는다22) .

칼빈의 신학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후기 개혁교리가 어느 정도 칼빈에게 기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칼빈 신학을 판단하는데 참으로 중요하다23) .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설교가들과 칼빈주의 저자들에게 의하여 이 문제가 취급되었다24) . 그러나 주어진 기본적 대답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여전히다. 선행을 하는 자는 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데오도레 베자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선행으로 확실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한다. 선행이 우리의 부르심이나 선택의 원인이 아니고.. 그러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선택되어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양심에 증거하기 때문이다25) .' .

우리는 동일한 점을 다시 발견한다. 행위는 구원에 원인이 되지 않지만 구원을 증거한다. 선행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고 믿음의 결과이다. 후천적 이유로 신자는 선택의 결과(행위)로부터 자기의 선택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신자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자기가 선택된 자 가운데 속하는 지 신자를 확신시켜 불안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위하여 중요한 심리적 역할을 돕는다26) .

III. 선택의 표징들: 칭의와 성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가 자신의 백성으로 그의 교회에 수를 헤아린 자들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과 그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를 갖는다27)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보증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거울이다28) ." 믿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연합에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이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29) .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의 말씀을 확실성을 인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우리의 양자 됨을 증거 한다30) . 믿음도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31) . 성령은 우리의 선택을 믿음에 증거하고 확증한다32) . 그러므로 결국 성령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앙 연합은 인간의 칭의(稱義)와 성화(聖化)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가 2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인간이 용납되었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게 인간을 확신시킬 수 있다. 이 점은 칼빈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다. 성화가 칭의만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선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칼빈에게 특징적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로 이와 같은 성화의 동일한 의미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원리에서 결과한다. 또한 인간이 그의 칭의에서 그의 선택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 때 성화에 대하여 동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어떻게 칭의에 대한 성화의 관계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지를 이해한다33) .

칼빈은 성화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칭의에서 그 칭의의 근거와 아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이미 성화와 칭의 자체에서 이해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칭의와 성화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의롭게 되고 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칭의를 또는 성화의 행위의 근거에서 그의 구원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지 구별해야만 한다34) .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너무나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여기서 구별하였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믿음의 열매라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칭의와 중생(=성화)은 서로 다른 일이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35) .

칭의의 은혜는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의는 전혀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는다. 칭의와 생활의 변화는 매우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변화는 평생 점진적이며, 전진하며, 어떤 때는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항상 죽음의 판결을 받을 위협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분적이 아니고 너그럽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순결을 가진 듯이 하늘에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부분적인 의만으로는 우리의 양심에 평화를 얻을 수 없다36) .

그러므로 칭의에 대한 어떤 주장이 사람의 마음에 의혹을 불러넣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동요시키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패악한 것이다37) .

그러므로 로마주의 자들의 칭의와 성화의 혼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어쨌든 칼빈의 공로는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화의 행위가 자기의 구원을 인간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것에서, 그가 성화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한 것처럼 우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행위의 불완전함은 인간에게 확신을 주는 대신에 불확실성, 의심, 그리고 좌절로 인간을 빠뜨리게 된다.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성화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인간을 결코 쉬게 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해서 쟁취된 이의 몫에 참여는 의심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동기를 준다38) .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든지 아니면 그는 어떤 확신도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39) ." 믿음만이 인간에게 이 필요한 확신을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행위로 도움을 추구하는 그 믿음은 비워진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동요한다40) ."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충분한 개입을 그 믿음은 바라볼 뿐이다." "이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이며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만족한다는 사실에서만 성립된다41) ."

인간이 행위에서 자신을 떠받치면, 믿음은 확신하지 못하므로 무너진다는 표현에 대한 분명한 모순으로, 신자가 중생한 자이란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이란 것을, 신자가 자신의 행위에서 성령의 역



사를 인식하게 될 때,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다른 사실이 성립된다.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은 그의 아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증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표지 아래서 바울은 성화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자를 오직 가치 있게 해주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의 아들로 구별하게 된다42) ." 성화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표징이다. 그러므로 행위는 선택에 대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간은 성령의 역사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을 다시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인식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들의 소명에 대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밖에 아무것도 행위에서 바라보지 않는다43) ."

그러나 이와 같은 성화의 표징은, 믿음이 숨겨져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된 자의 행위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에, 칭의의 표징으로부터 구별된다. 그것은 행위에서 여전히 더 큰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준다. 칼빈은 틀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증생한 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를 기린다44) .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45) ."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 자기의 소명을 인간에게 증거해 주는46) 가장 확실한 표징이다47) .

행위의 명백성은 다른 사람의 선택 도한 그들의 행위에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더욱더 가능하게 한다.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확신과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선택된 자에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에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의 외적 역사 이외에 어떤 표징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증거 해 주는 한에서, 우리는 그 표징을 인식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러한 두가지 방법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신앙의 확신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식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다른 증거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만 한다48) ."

다른 사람의 선택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 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판단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위는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구원으로 부름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삶을 확인하는 것을 언제나 가능하게 한다49) .

칼빈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선택을 모두가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위치에 잘 갖다 놓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칼빈이 버림받은 자로부터 선택된 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손에 갖기를 원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인간에게 그러한 판단을 할 권리를 다시 갖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밝힌다. 왜냐하면 그는 언젠가 한 번 아주 분명히 말하였다. 다시 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곧 그가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속해 있지 않는지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버림받은 자로부터 선택된 자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특권이다."50) 오직 믿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사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문제를 칼빈은 해결한다51) .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에 다른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지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의 교의는 옳다."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교회로서 교회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는 여기서 버림받은 자와 선택된 자 사이를 구별하는 과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



에게만 합당하고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52) ."

그것에 반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에 확실하게 적응시켰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의 아들로 간주되는 지를 알아야만 한다면, 그것이 확실한 정도로 유익하다는 것을 그가 내다보았기 때문이다53) ."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신앙고백과 함께 있고, 성찬을 받음에서 삶의 실재를 참여시키는 것과 함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삶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칼빈이 그렇게 기린 곳은 바로 여기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해되는 곳에서, 다시 말하여 선행에서 나와 다른 삶이 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 그렇게 알려진 소속은 볼 수 없는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믿음을 다시 개인적으로 강화시키게 된다. "순수한 삶은 마땅히 선택의 표징이며 증거로 불리어지게 되고, 그 표징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스스로가 이 믿음에서 강화된다. 그러나 오직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른 어떤 것에 근거시킨다는 조건 아래서만 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표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버림받은 자로부터 구별되고, 그 때에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이다." "행위는 또한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될 수 없고, 행위는 오직 그의 확신가운데 인간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54) ."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행위에 근거에서 확신하게 되지 않고, 믿음에 근거에서 확신하게 된다. 인간이 먼저 믿음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난 후에, 성화의 행위는 우선 보충적으로 더해진다. "행위를 통하여 믿음에서 강화됨이 더욱이 우리에게 더해지지만, 우리는 결코 극적으로 시작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된 자를 버림받은 자로부터 구별하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구별이 이것이다. 즉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하게 의존하면서도 나타나는 일들 또한 무시하지 않지만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수 백번 말씀할 지라도 그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보여 주시도록 계시고 열렬히 요구하고 있다55) .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우리는 먼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실천적 삼단논법"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칼빈의 주석에서 살펴보고 한다.

칼빈의 후대에 문제가 된 이 문제의 시작이 칼빈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칼빈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믿음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으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각 사람이 스스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적적 판단으로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생각을 판단해야 된다면, 우리는 추측으로 은혜를 도달할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56) ." 고 한다. 그러면서 칼빈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밝히겠다고 약속을 한다57) . 다른 곳은 강요 3권 15장이다.

칼빈은 "우리가 선택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경험적 증거(nigmm posteriora)를 가져야 한다58) ." 고 한다. 칼빈은 "나무와 같이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59) "고 한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강요 3권 14장 18절 이하에서 "실천적 삼단논법"에 몰두한다.



성도들은 작의 구원의 기초를 두고 굳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만을 우러러 본다. 복의 시초는 선에 있다고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로 갈 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복의 환성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안주한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 수립된 양심은 행위를 생각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확립된다. 즉, 그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증거인 때에 한하여, 양심은 그 행위에 자신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행위에 대한 이 자신은 설 곳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그 의지하는 자와 상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60).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에 대한 신뢰감을 배척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공로가 구원에 보조 수단이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값없이 의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징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지 않는다61)." ."

칼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징"인 선한 행위를 인정한다. 그 표징은 믿음을 강화한다.

V. 칼빈의 성서 주석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칼빈은 선택의 표징을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데살로니가 후서 2:13절에 감명 받았다. 그 말씀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성화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의 확실한 표징(signs)이나 표지(marks)를 제공해 주었다. 표징이나 표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구원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멸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캐묻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도록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표징들(signs)과 표지들(tokens)을 보여 주셨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신뢰를 준다62)." ."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탐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복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깨우쳤다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증거를 추구해야만 한다. 칼빈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제쳐놓기를 원하지 않고 선택의 표징들을 말한다.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2:13절의 주석에서 "적당한 표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확인은 신앙의 표지에 대한 칼빈의 관찰이 교회론적 맥락에서 아니고 그들 자신의 표징을 신자들이 추구하도록 하는 데서 나타난다.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in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and belief of the truth) 구원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3-4)라고 말한다. 칼빈에 의하여,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성화와 함께"(with sanctification)라는 뜻과 "성화에 의해서"(by sanctification)로 해석할 수 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성화는 그 자체로서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표징들로서 분명하게 선택과 관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의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그가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가 그의 영에 의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의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깨우쳐 주셨는지에 대한 만족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복음은 우리가 양자 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성령 또한 양자 됨을 인친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63) .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64) .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명령하는 그의 계시를 무시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명령하는 욕망, 곧 그의 신비한 뜻으로부터 그의 계시를 캐묻는 욕망으로 끝없는 심연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만족해야 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구실로 하여 갖가지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타락을 반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어떤 표준에 의하여 우리가 선택을 측량하지 않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과 중생에 선택을 연결하기 때문이다(65)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가? 칼빈은 요한 일서 3:14절 주석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칼빈은 구원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은 확실한 중생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표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중생한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한다고 요한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칼빈은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믿음이 그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믿음을 도울 수는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그 기초를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행위가 우리의 권의 현실 근거는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행위는 인식 근거가 될 수 있다(66) .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를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칼빈에 의하면 요한 일서 2:3절에서 믿음은 행함에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고, 행함은 믿음의 표징으로 덧붙여 따라 오는 부수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 그러나 생활의 경건성과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이고 죽은 지식으로부터 참 믿음을 구별하게 한다(67) .

칼빈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해석한다(68) .

우리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으로 그 열매를 매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며 헛되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사도는 이 입증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내고 힘을 써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메마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너희가 헛되이 부르심을 받거나 택하심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힘쓰라'는 말이다. 택하심이 먼저이고 부르심이 나중이나 '부르심'을 먼저 언급한다. 그것은 곧 택하심이 더중요하고, 또 문장의 서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말은 끝에 두기 때문이다. '부르심'은 선택의 결과나 증거이다. 부르심이나 선택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해도 무방하다고 칼빈은 보고 있다. 그것은 성경이 두 단어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계속하여 베드로 후서 1:10절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고한 여부가 선택에 달려 있느냐 달려 있지 않느냐에 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다면 곧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성경에 연관된 가르



침은 우리의 택하심이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기초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비로소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어 그의 은혜로우신 선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퀘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림으로 이 증거를 왜곡시키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퀘변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만일 누가 자기의 부르심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확고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누구나 자기의 부르심을 확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칼빈)는 여기서 퀘변자들이 내린 결론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원인에서 끌어온 증명이 아니고, 표적이나 결과에서 끌어온 증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택이 왜 자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할 뿐더러 여기에는 선택의 효력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결론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칼빈은 여기서 "실천적 삼단논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다만 칼빈이 경계하는 것은 선택의 표징이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면서 당시의 로마 카톨릭교회의 잘못된 이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은밀하신 경륜 가운데서 생명을 언도록 예정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순전하신 은혜로써 그의 부르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되 그의 앞에서 정결하여 점도 티도 없이 드러나게 하실 목적으로 부르셨으므로 정결한 삶은 선택의 확증으로 인정된다. 그로써 신자들은 다른 삶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에 자신을 일치시키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된다.

칼빈은 야고보서 2장 14절-25절 주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선자들은 믿음은 구원의 초석이므로 믿음이면 족하다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므로 야고보는 이 못된주장을 뒤엎고 있다. 사랑은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과, 아니 그것은 순전한 낭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 구별될 수 있는이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퀘변자들은 미형성된 믿음과 형성된 믿음(informis et formata)이라는 식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여기서 야고보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위선자를 말하고 있다(69) .

그는 선행이 없는 믿음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70) .

열매는 언제나 좋은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다. 야고보는 선행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고 야고보는 믿음의 진실성을 행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71) .

믿음이 행위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가 아니다. 행위와 믿음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확증한다. 여기서 믿음이 비활동적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믿음을 증거한다. 이 행위는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그 때 처음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그의 본래의 온전함이 확증되었다. 이것이 야고보의 주장이다.

VI.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에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우리가 용납되었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에서 동일하게 인간을 확신시킬 수 있다.

성화가 칭의 만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선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칼빈에게 특징적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로 이와 같은 성화의 동일한 의미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원리에서 결과한다. 또한 인간이 칭의에서 자기의 선택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 때 성화에 대하여 동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어떻게 칭의에 대한 성화의 관계의 문제로 되돌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개혁신학에서 행위는 구원의 근거에 조금도 설자리가 없지만 칭의의 동기에서 뿐이지, 믿음은 선행을 결하지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칼빈은 행위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이해되는 것을 허락한다. 신자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다스린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주 예정론에 근거를 갖는 신학에서 행위와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혁신학에서 예정론은 최고의 중요한 시험 윤리로 나타난다. 실천적 삶에서 이 신학은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확신시켜야 하는 행위 추구를 보여 준다.

각 주

- 1) Wilhelm Niesel, "Syllogismus practicus?" in Aus Theologie und Geschichte der reformierten Kirche, Festgabe f r E. F. Karl Mueller-Erlangen zu dessn 70 Geburtstag. Neukirchen 1933, S.158.
- 2) Ibid.
- 3) Ibid.
- 4) A.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Oxford, :Blackwell 1996), p. 241. "실천적 삼단논법"이란 (1) "선택된 사람은 모두 그 선택의 결과로서 확실한 선택의 표징을 나타낸다. (2) 그런데 나는 그러한 표징을 나타낸다. (3)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자이다."라는 표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논법이다.
- 5) Wilhe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M nchen:Kaiser Verlag 1957), S. 172/3.
- 6) A. E. mcGarth, Ibid. p. 239.
- 7) Ibid.
- 8) Inst., III. xxi, 1.
- 9) A. E. McGrath, Ibid., p.240.
- 10) Inst., III ii 17/18.
- 11) Inst., III xi 1.
- 12) A. E. McGrath, Ibid. p.240.
- 13) Inst., III xiv 18.
- 14) Inst., III xiv 6/11.
- 15) Inst., III xiv 18.
- 16) Ibid.
- 17) A. E. McGrath, Ibid. p.240.



- 18) Ibid.
- 19) Willhelm Niesel, "Syllogismus practicus?" S. 158.
- 20) Ibid.
- 21) Ibid.
- 22) Ibid.
- 23) Ibid.
- 24) A.E. McGrath, Ibid., p240ff
- 25) de Beze, Brief and Pithie Summe, 37-38. McGrath의 위에서 인용한 책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인용하였음.
- 26) A. E. McGrath, Ibid., p. 241.
- 27) CO 1:74.(= Inst., 1536 II, 4 De Fide) "Cum... Christus Dominus noster is sit, in quo pater ab aeterno elegit quos vouit esse suos, ac ecclesiae suae gregem referri satis clarum testimonium habemus, nos et inter Dei electos et ex ecclesia esse, si christos communicamus."
- 28) Inst., III xxiv 5. "Quod si in eo sumus electi, non in nobis ipsis reperiemus electionis nostrae ecrtitudinem"... "Chritus ergo speculum est in quo electionem nostram contemplari convenit, et sine fraude licet."
- 29) CO 51:299.(Sermon V;Sur l'epitre aux Ephesiens)
- 30) CO 50:24.(= Comm. II Cor. 1:21.)
- 31) CO 49:212.(= Comm. Rom. 12:2)
- 32) CO 51:650(= Sermon XXXII); CO 50:62(=Comm. II Cor. 5:4/6); C50:24.(= Comm. II Cor. 1:21.)
- 33) Alfred G ler, Calvins Lehre von Heiligung (M nchen:Chr. Keiser Verlag, 1934)S. 98/99.
- 34) Ibid. S. 99
- 35) Ibid. 3 III Xi 11.
- 36) Ibid. 1
- 37) Ibid.
- 38) CO 37:351(=Comm. Isa. 59:20/21) ; CO 23:717(=Sermon Gen, 15:6)
- 39) CO 23:717(=Comm, Gen. 15:6) "I faut qu'il y ait une certitude en nostre foy."
- 40) Inst. III xi 11.
- 41) CO 23:717.(=Sermon Gen. 15:6) "ceste certitude (sc. en nostre foy) ne peut ester sinon que Jesus Christ soit nostre advocat et que sa mort soit la satisfaction de nos pechez."
- 42) CO 49:147.(=Comm. Rom 8:14) "Docet(sc. Paulus)... eos... censeri in Dei filiis, qui reguntur eius spiritu: quoniam hac nota suos Deus agnoscit... hic sanctificationem intelligit qua non nisi electos suos Dominus dignatur. dum eos sibi in fillos segregat."
- 43) Inst., III xiv 20. "ea(sc. opera) non aliter quam Dei dona intuentur (sc. sancti) unde eius bonitatem recognoscant, non alitr quam vocationis signa unde electionem."
- 44) CO 33:691. (=Sermon Iob. 14:13/15.)
- 45) CO 51:53.(= Sermon, Gal. 5:22/26.)"l'examen de nostre vie ne pourra mentir."
- 46) Inst., III xv 8.
- 47) CO 49:144.(=Comm. Rom. 8:9)
- 48) CO 52:9.(=Comm. Phil. 1:6)
- 49) CO 49:312(=Comm, I Cor. 1:9)
- 50) CO 1:75(=Inst, 1536, II 4 De Fide) : Vgl. Inst., IV I 8.
- 51)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판단과 선택된 자 가운데 속해있다는 것은 같은 사실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는 여기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의 표징에 대한 표현을 함께 접근한다.

52) Inst., IV i 3.

53) Inst., IV i 8; Vgl. IV i 7.

54) Inst., III xiv 18.

55) CO 36:116.(= Comm. Isa. 5:19)

56) Inst., III ii 38.

57) Ibid.

58) Inst., III xiv 4.

59) Inst., III xv 8.

60) Inst., III xiv 18.

61) Ibid.

62) CO 52 : 206 (=Comm. II Thess. 2:13)

63) Rom 8:14.

64) CO 55:339(=Comm. 1 Jn 3:14)

65) CO 52:206(=Comm. II Thess. 2:13)

66) 이 점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은 차이가 없다. 루터는 "행위는 신앙의 인식 근거이고, 신앙은 행위의 사실 근거이다"라고 말한다. 행위는 신앙의 사실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7) CO 55:311(= Comm, 1 Jn 2:3)

68) CO 55:449/50(= Comm, II Pet. 1:10)

69) CO 55:403/4(=Comm. Iacobi 2:13/15)

70) CO 55:404(=Comm. Iacobi 2:17)

71) CO 55:405 (=Comm. Iacobi 2:21)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